

광범한 반기업 정서가 이견회를 물려서게 하다

시위 학생 징계 논의 철회하라



삼성회장 이견회의 철학박사 학위수여 반대행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이견회는 “이번 일은 내 ‘부덕의 소치’”라며 “이 문제가 고려대나 학생, 삼성 모두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꼬리를 내렸다.

이견회가 물려서게 된 것은 사회저변에 도도히 흐르는 광범한 반기업 정서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영자지 <코리아타임스>는 “광범한 반기업 정서”가 삼성측 성명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보수언론들은 ‘반기업 정서가 기업할 의지를 꺾는다’며 반기업 정서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빈곤층 700만 명 시대에 부자

들은 오히려 재산이 불었다. 삼성이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불법증여를 했다는 사실은 누구 나이에도 경찰은 이견회를 조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견회는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갈 만큼 넓은 빌 게이츠의 집을 모델로 해 800억 원짜리 가족타운을 짓고 있다. 삼성 임원들은 스톡옵션으로 앞으로 1조 2천 4백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삼성이 헌법에 버젓이 보장돼 있는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막기 위해 노조원들을 지방으로 데려가 감금, 폭행, 협박하고 핸드폰 위치추적까지 가리지 않는 데도 제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본 적은 없다. 삼성소유의 이마트 노동자들은 “삼성이 무노조 경영 이념을 갖고 있다”는 누구나 아는 사실을 말해도 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명백한 불평등과 기업의 노동자 탄압, 인권 유린 등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이견회와 같은 사회특권층에 대해 반기업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덕의 소치’

이번 이견회 학위 수여식 논란 또한 사람들의 반기업 정서를 자극했다. 철학에 아무런 학문적 기여를 한 바가 없는 사람이 400억 원 이상의 돈을 기부했다고 철학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견회 같은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참으로 대단하신 회장님’ 이견회가 항의를 받자 보수언론, 재계, 학교당국 심지어는 청와

대와 장관까지 나서 이견회의 비위를 맞추고 시위 학생들을 비난하는 데 앞장섰다.

이견회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총장이 직접 나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과문을 전달했다. 또한 김영삼 지지 시위 때와는 달리 부총장 이하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하고, 심지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5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해 징계를 하겠다고까지 발표하자, 많은 사람들이 ‘삼성에 대한 과잉충성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반기업 정서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 두려워 이견회는 물려선 것이다. 우리의 시위는 삼성과 대기업들로부터 온갖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던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했다.

징계 논의 철회하라

사람들의 반기업 정서 때문에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이견회조차 사태가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힌 마당에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완전 철회해야 한다.

1천 8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인상반대를 요구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던 학교당국이 재벌총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전원사퇴까지 결심한 것은 학교당국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노동탄압과 불법증여의 장본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이 고려대학교 당국의 교육철학인가? 학생징계가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단 하루만에 드러난 '총학없는 평화고대'의 위선

'총학없는 평화고대' (이하 '평화고대')는 정대 후문 1인 시위와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지난 5월 2일 있었던 이건희 명예 박사학위수여 반대시위에 대해 '폭력성'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2일 학위수여 반대시위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 당국과 삼성이었다. 학생들은 폭력을 쓸 계획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행사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건희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항의하기 위해 다가갔을 뿐이다. 이건희 회장은 털끝하나 다치지 않았다. 오히려 부상을 입은 쪽은 학생들이었으며, 한 남학생은 몸싸움 과정에서 귀가 찢어졌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와중에 자제를 요청하던 학생 대표는 학교 직원들에게 얼굴을 얻어맞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 유인물의 4면 '폭력 왜곡 중단하라'를 참조)

게다가 학교 당국은 운동부 학생 30여 명을 동원하여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성



평화 시위 조차 가로막은 '평화고대'

북경찰서는 시위 참가자에게 '총장님과 삼성측의 요청에 따라' 시위학생들을 연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총학 없는 평화고대'는 계속 우리더러 폭력을 썼다고 왜곡한다. 심지어 이들은 5월 5일 100주년 기념식에서 "다함께"

가 폭력을 쓸 것이라는 식의 거짓 선동을 해대고 다녔다.

'평화고대'를 주도하는 이승준 씨는 "폭력적인 방법은 절대 안 된다. 조용히 피켓시위만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면 될 일" (한겨레 5월 4일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이 위선이라는 점은 단 하루 만에 드러났다. '평화고대'는 "비폭력적인 의사표현은 자유"라고 밝혔지만, 지난 5일 침묵의 표현으로 마스크까지 쓴 침묵시위조차 학교직원들과 함께 가로막았다.

침묵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위수여반대 시위의 정당성과 학생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팻말 시위만으로 의견을 알리려고 했다. 하지만 학교직원들과 '평화고대' 측은 행사장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다.

결국 '평화고대'를 주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심은 애초부터 '폭력성' 여부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들은 '폭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이건희에 항의한 행동 자체를 비난하려고 했던 것이다. 평화 시위조차 가로막은 '평화고

대'는 '폭력 시위' 운운하며 왜곡을 일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평화고대'는 5월 2일 시위를 빌미로 "총학 사퇴"를 주장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 그들은 총학생회가 이 시위를 주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총학없는 평화고대'라는 조직명칭을 사용하며 총학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평화고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라, 총학생회로 상징되는 진보적 학생들을 소위 '운동권'으로 딱지 붙여 그 자체로 문제 삼는 '의심스러운'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들은 이제까지 시위는 공감하나 '폭력'은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하다가 어느 새 '학생회의 대표성'으로 논점을 은근슬쩍 옮겼다.

2000여명의 학생들이 비상총회에 모였을 정도로 광범한 지지를 받았던 등록금 투쟁때조차 총학생회를 헐뜯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어 왔다. 이런 식의 근거없는 선동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대자보 훼손 행위 중단하라

학교에는 많은 대자보가 붙어 있으나 유독 이건희 항의 행동을 지지하는 대자보들만이 집중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의견의 동의여부를 떠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자보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대자보의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그 옆에 반박대자보를 붙이면 된다. 앞으로 이런 유치한 행

위는 사라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평화고대'도 대자보 훼손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

(대자보 훼손 행위를 목격한 분들은 신고해 주십시오. 휴대폰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로 훼손 장면을 찍어서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습니다. nokdootg@hanmail.net)

‘자유포럼’의 정체

.....

**합리성의
가면을 쓴
수구우파**

‘자유포럼’이라는 단체가 이견희 회장의 노동탄압 사실조차 부정하고 나섰다. 학위 수여 반대 시위에 대해 비판적인 이들조차 대체로 인정하는 사실까지 부정해가며 이견희를 감싸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작년 12월 초순, ‘자유 포럼’은 당시 수구우파가 미디어를 통해 띄워줬던 ‘뉴라이트’ 바람을 타고 학내에 처음 등장했다.

이들은 기존의 수구우파적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합리적 자유주의’의 가면 속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들 주장의 내용은 수구우파의 주장과 전혀 차이가 없다.

이들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은 외면하면서 “세계화라는 사회의 질적 변동을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농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WTO의 입장을 지지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대해서는 “오바”로 규정하면서 “폐지되지 않아도 별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단체가 ‘자유’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다.

사실, 이 단체가 자임하는 ‘자유’란 오늘날 사회의 기득권·지배자들의 ‘자유’를 의미할 뿐이다. 지배자들이 가진 권력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지배자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 말이다.

그 동안의 전력을 보자면, 이들이 이견희의 노동 탄압 전력에 대해서 감싸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견희 박사학위 수여 항의 시위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

손석춘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사소하게는 고려대에서 석사를 마친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저 ‘전투적 기업인’에 맞선 고대 총학생회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부디 정치·경제·언론의 부라퀴들이 벌이는 ‘마녀사냥’에 절망하지 않길 바란다.”

진중권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고려대학교에서 명예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의 제목은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 건립과 현대철학의 상관관계.” 무슨 명분을 갖다 부쳐도,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는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해 4백억을 냈고, 고려대학교는 그 돈의 가공할 명치를 기리기 위해 “명예”롭게 영수증을 떼어주었다. 이것은 “철학”적 사건이다. 한국 철학계에 일찍이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던가?... 삼성 철학의 상상력 밖에서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아주 가끔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도 있다.”

민주노동

“자본주의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교육현장은 달라야 한다. 오히려 ‘초일류삼성’에 가려진 노동탄압 현실을 드러내고 문제제기 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말로 고려대 교훈에 따라 ‘자유·정의·진리’를 실현하려는 용기 있는 외침이라 아닐 수 없다.”

다산인권센터

“진실을 전달하려는 젊은 사람들의 열정을 이해하는 이 회장이 ‘무덤에 묻힌 무노조 경영 이념을 지키기 위해, 자기 기업 내 젊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는 왜 이해하지 못하는 지, ‘그들의 인권을 처절히 짓밟는 기업 경영 원칙’에 대해서는 왜 반성하지 못하는 지 궁금할 따름이다... 관련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절대 없어야 하며 한편으로 이번 기회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의 반인권성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노동당

“학내 소동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잇달아 논평을 내놓는 일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보는 장면이며,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는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삼성의 어두운 면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

“편법 상속과 무노조 경영, 노동자 탄압으로 악명 높은 이견희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항의했을 뿐, 주먹이나 팻말 등을 휘두른 일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폭력인가?... 삼성의 비즈니스 카운슬러였던 리처드 웰포드 교수에 따르면, 삼성이 ‘환경, 노동, 복지’와 관련된 법규를 무려 238건이나 위반’했음을 폭로한 바 있다. 한편 이견희는 내 집 마련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비롯기라도 하듯이 무려 1천6

백 평, 8백억 원에 이르는 ‘가족타운’을 짓고 있다... 시위 학생들에 대한 모든 비난과 징계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한신대 김종업 교수

“삼성이 얼마나 세기에...부총장 이하 고대 보직 교수들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했고, 고대 총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대가 삼성에 납작 엎드린 것이다... 삼성의 비대한 권력과 막대한 생산력을 우리 사회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두기가 극히 어려워진 것은 물론 자칫 우리 사회가 삼성의 통제 아래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심화를 지향한다면 우리는 이제 삼성을 비판적 사유와 사회운동의 대상으로 삼기울 계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노동자들을 조작취하며 승승장구하는 삼성자본의 총수 이견희에게 정당하고 강력하게 투쟁한 고대총학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 2004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독일 함부르크 대학이 명예 박사학위를 주려하자 교수와 학생, 시민단체가 격렬한 반대 투쟁을 벌였고, 대학측이 강행하려하자 교수들이 연판장을 돌려 결국 무산시켰다. ‘푸틴 대통령이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학문적 성과를 낸 일도 없는데도 체첸 사태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러시아 자유언론을 억압하는 등 권위주의 정치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것이야말로 지성인이라 자처하는 교수들이 해야할 당연한 행동이다.”

폭력 왜곡 중단하라



말과 껏말로 향의한 것이 '폭력'인가?

5월 2일 있었던 이견희 회장 명예 철학 박사 학위 수여 반대 시위는 3시 반부터 7시 가까이 까지 진행되었다. 보수언론들과 학교당국, '총학 없는 평화 고대' 등은 시위가 폭력으로 점철된 것처럼 묘사하지만, 시위대는 폭력을 의도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다만, 이견희같은 노동탄압의 장본인이 아무런 항의없이 수여식장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학생들의 입장 저지 시도가 있었을 뿐이다. 입장저지 시도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제 시위에서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과 행사저지를 구분해, 후자를 '비폭력 저항'이라고 부른다.

대체로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도로 양편으로 줄을 지어 피켓을 들고서 있었고, 이견희 회장이 입장한 후에는 연좌시위로 전환해 행사장 정문 앞에 앉아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집회는 여러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이어지면서 민주적으로 진행됐다. 이견희 회장과 삼성 그룹에 대한 구체적 폭로라든가, 인문학도로서

느끼는 분노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 심지어 이 시위를 비판한 학생처장 교수님께도 발언 신청 의사를 존중해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까지 했다.

비폭력 저항

이견희 회장 입장 전후 사실관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학교측은 일부 교수들과 교직원들을 동원해 행사장 앞에 일종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마치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학생들이 큰 죄라도 지을 것인 것처럼 말이다.

위압적 분위기 조성은 계속 이어졌다. 학교 측은 운동부 학생 30여명을 불러 학생들의 시위대열 앞에 대치시키기도 했다. (시위 대열은 어떤 문제인지도 잘 모른 채 불러왔을 운동부 학생들에게 학우들 간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다행히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또 교우회의 한 인사는 집회를 진행하는 대열 지도자를 팔을 잡아끌고 나와 대열 밖에서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런 학교 측의 대응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초에 학교 측은 이 시위의 정당성이나 이유 따위는 관심도 없었다. 학생들의 정치적 주장에 귀 기울이지는 커녕, 애초에 집회를 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견희 회장의 차량이 나타났다. 애초에 시위 참가자들은 이견희 회장이 밟고 지나갈 레드 카펫 주위에서 피켓 라인을 만들고 그의 입장을 저지하려 했다. 시위대는 이견희 회장에게 순순히 길을 열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시위대는 의사를 좀 더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시위대의 예상과 달리, 이견희 회장은 시위대를 아예 무시하고 문 쪽 옆길로 급히 행사장으로 들어가려 했다.

예상 밖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더 분명한 항의 의사를 전달해야겠다는 몇몇 개인들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항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봐 더 가까이 쫓아가 말과 껏말로 항의했다. 여기서 교직원들과 이견희 회장의 사실 경호원, 그리고 학생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고 이것이 학생들의 일방적 '폭력'으로 둔갑했다.

이 와중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견희 회장이 아니라 학우들이었다. 학우들 중 2~3명은 구둑이가 뜯어져 피가났고, 손이 찢어지기도 했으며 얼굴을 구타당하기도 했다. 사태를 진정시킨 것도 학우들 자신이었다. 이견희 회장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간 후 대열 지도를 하던 참가자들은 대오를 정리하고 연좌시위에 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이 호소 덕에 더 이상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보수언론들이 있지도 않은 폭력을 언급한 진정한 이유는 이견희 회장 비판 주장 자체를 묵살하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정 폭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큰 문제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학내에 전경을 충돌시키겠다고 협박하는 학교나 노동자들을 일분까지 납치해 노조 사퇴서를 강요하는 이견희 회장이라면 진정 이 사회의 거대한 '폭력' 사용자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런 진정한 폭력에 반대한 5월 2일 이견희 회장 학위 수여 반대 시위는 매우 정당하다.